

						I-C-1
제목	국문	직업, 교육수준, 물질적 결핍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relationship of occupational class, educational level and deprivation with mortality in Korea				
저자 및 소속	국문	손미아 1, 오상용 1, 배상수 2, 백도명 3, 문옥륜 3 한림대학교 산업의학센터 1,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영문	Son Mia1, Oh Sang-Yong1, Bae Sang-Su2, Paek Domyung3, Moon Ok-Ryoon3 Hallym University Occupational Health Programme1, Hallym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분야	보건관리 [사회의학]	발표자	손미아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사회계급과 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서구의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사회계급을 대표하는 여러 지표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계급의 지표로 사용되는 직업, 교육수준, 물질적 결핍(deprivation)이 어떻게 한국의 전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p> <p>2. 방법</p> <p>전국 사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통계청에서 전국 사망자수를 분자로 하고, 1995년 10% 직업별 센서스조사를 분모자료로 사용하였다. 직업, 교육수준, 물질적인 결핍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Poisson regression modeling 과 multilevel analysis 를 사용하였다.</p> <p>3. 결과</p> <p>육체적 작업자들(Manual workers)이 비육체적 작업자들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RR 남성: 1.65, 여성: 1.48). 교육수준과 사망률과는 역의 선형관계(inverse linear relationship)를 보이고 있었다 (RR (초등학교: 대학이상), 남성: 5.11, 여성: 3.42). 또한 가장 물질적박탈이 심한 집단에서 덜한 집단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고 물질적 박탈감과 사망률과도 역의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직업과 교육은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교육수준을 보정한 후에 직업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직업을 보정한 후에 교육수준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은 남아 있었다.</p> <p>4. 고찰</p> <p>이 연구에서 직업, 교육수준, 물질적인 결핍으로 표현되는 사회계급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은 서구의 다른 발전된 나라들보다 한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한계와 직업과 교육변수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p>						